



변지수 전 전북대병원장,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병원은 제2·3대 병원장을 지낸 변지수 전 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기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온고을홀에서 열렸으며, 고령인변 전 원장을 대신해 가족이 참석해 기금을 전달했다.

변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병원의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번 기부 역시 병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오상근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올 상반기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21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무실무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유드라이브 △구글시트 기본 사용법 △업무용 챗봇 제작 △프락트 스트 활용 등 IT 도구를 활용하여 교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자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울러 관내 교무실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 노하우를 나누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한 교무실무사는 "연수에서 배운 스마트워크 도구들을 현장에 적용하면, 복잡한 데이터 취합이나 문서 관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숙경 교육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학교 행정 현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연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교무실무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형성 기자



군산 경양동 지사협, 꿈나무 장학금 지원

군산시 경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꿈나무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초등학생 10명에게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원받은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란 경양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구의날, 전주천 환경정화 캠페인

신천지 자원봉사단 전주 지부(이하 전주지부)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전주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자원 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행된 행사에는 봉사단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천 팔복동 추전대교에서 신봉교에 이르는 구간을 돌며 하천 주변에 방치된 부유물과 생활폐기물 등 총 200L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했다.

“봉사, 어려운 이웃 외면 않는 데서 시작”

유영준 목사, 초아의 봉사대상
지역사회부분 봉사대상 수상
매주 500여명 점심식사 제공
빨래 등 소외계층 삶 전반 보듬어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이불을 세탁·건조해 드리는 '이동 빨래 봉사',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마켓·푸드뱅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주 지역 푸드마켓의 경우 월 1,000명가량이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한, 매년 어린이날에는 정읍 수성동 근린공원에서 약 2,000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효잔치'를 개최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역시 전액 민간 후원으로 마련된다.

유 대표의 봉사 인생은 20여 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던 한 어르신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그때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깨끗한 이불을 덮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상했다.

한편, 유 대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전북도민일보사가 주최한 '진절봉사대상' 민간인 부문 수상을 비롯해 정읍에서도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정읍지역 푸드마켓, 푸드뱅크 세탁차를 통해 세탁기 3대 설치, 건조기 3대를 설치해 주 5회 이불세탁을 해드리고 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관으로 밤차와 무대차, 세탁차를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려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서로 돕는 따뜻한 지역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겸손하게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유채꽃 '만개'

정읍시 덕천면에 자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샛노란 유채꽃 물결로 물들며 봄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포근한 봄바람이 스치는 공원 내 산책로 주변에는 유채꽃밭이 마치 노란 용단을 깔아놓은 듯 화사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싱그러운 초록빛 수목과 만개한 유채꽃이 파란 하늘과 한데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면서, 이곳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꽃밭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남기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공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적지 일대에 조성된 뜻깊은 공간이다. 시는 방문객들이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동시에, 만개한 유채꽃과 함께 자연 품에서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전통시장 등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남원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대표적 다중이용시설물인 전통시장과 대형상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서, 안전지원단(건축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되어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부의 손상·균열 누수 등 결합부위 여부 △전기는 전력계의 과부하·과전압 등 여부 △가스는 화재 발생 가능성 및 가스 배관의 누출 여부 △소방에 대해서는 소화설비의 설치 및 작동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의 경우 응급조치 및 사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안전 조치를 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생면, 홀로어르신 생신축하사업 추진

남원시 주생면(면장 이정찬)은 관내 홀로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홀로어르신 생신축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생면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연계해 진행, 생신을 맞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케이크와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과 1일 1가구 안부살림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사항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어르신은 "변장님과 위원분들이 직접 찾아와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해주니 참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찬 주생면장은 "앞으로도 1일 1가구 안부 살림과 연계해 취약계층과 홀로 어르신의 건강과 불편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봉사내방

▲이만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창 농어촌공, 침수위험지역 주민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21일, 농업인 및 농어민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위험지역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워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사는 정밀농경지 침수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한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현대화 필요성 등 지역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지사는 참여방을 위해 울재 배개간(6지구) 및 수리시설보수(4지구) 등 총 14억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농경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배수장(개소)을 상시 점검·운영함으로써 기습적인 폭우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합·소통의 장... 고창부안축협 조합원 한마음대회

고창부안축협(조합장 오교을)은 최근 조합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합원 한마음대회는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축산기자재 전시·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는 부안군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내·외 조합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1,5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해 뜻깊은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조합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진행했으며, 조합원 간 친목 도모와 단합을 통해 고창부안축협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고창부안축협은 조합원 1,568명, 총자산 4,400억 원, 임직원 120명 규모의 건설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으며, 금융사업과 축산관련 경제사업으로 농가를 위한 유통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지도지원사업(컨설팅, 영농지원 등)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합원 실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축산농가 지원, 구매·판매사업 활성화, 금융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축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은 조합원들의 웃음과 화합으로 가득 차으며, 고창부안축협의 새로운 도약과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고창=김형성 기자



이건국 지사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성 기자



조합원 한마음대회는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축산기자재 전시·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는 부안군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내·외 조합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1,5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해 뜻깊은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은 조합원들의 웃음과 화합으로 가득 차으며, 고창부안축협의 새로운 도약과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고창=김형성 기자

김제시, 2026 미용업소 위생교육 성료

김제시는 21일 지역 미용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미용업 위생관리 기준 및 감염예방교육, △최신미용 트렌드 및 기술 교육,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생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위생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김제=곽태기 기자

슬기숏살갓비 김제점, 취약계층 어르신에 식사 지원

김제시는 슬기숏살갓비 김제점이 21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갓비탕을 지원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식사 지원 행사는 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갓비탕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에게 영양 가득한 한 끼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나눔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김제=곽태기 기자